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컬럼

관심(觀心)

의사는 시내를 돌아다니면 온통 병원 간판 밖에 안 보인다고 하고, 옷장수는 옷 가게 만 수두룩하다고 한다. 그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기도원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 라고 하면 기도원 식구들이 어떻게 다 아느냐고 놀라며 묻는다. 다른 게 없다. 관심이 있을 뿐이다.

관심이 있으면 보이고 들리게 되어 있다. 음식점을 하던 어느 장로가 하는 말, “사장 눈에는 음식에 들어간 머리카락이 동아줄로 보입니다.” 손님상에 나갈 음식에 관심을 가지니 실수로 들어간 머리카락이 동아줄로 보이는 것은 당연지사다.

사랑은 관심이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아내가 모처럼 옷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그 옷을 입고 남편 앞을 왔다 갔다 해도 남편이 모른다. 되레 왜 정신없게 왔다 갔다 하나며 핀잔만 준다. 아내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사랑이 식어서 그렇다. 부모님께 관심이 있는 자는 얼굴만 봐도 ‘어디가 좀 불편하시구나.’ 안다. 그러나 무관심한 자는 한 달을 앓고 헬썩한 부모를 봐도 전혀 모른다.

책임감은 관심의 자녀고, 무책임은 무관심의 자녀다. 자기 구역 성도들이 떨어져나 가도 모르는 전도사, 구역장, 조장이 있다. 오랫동안 아파서 안 나와도 전화 한 통 안 한다. 관심이 없으니 무책임한 것이다. 반면 교회의 대소사를 스스로 찾아 하는 자들이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생각했어?” 하고 물으면 그들은 “그냥 눈에 보이던데요.” 라고 한다. 그들 시력이 좋아서, 그들 청력이 좋아서일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이고 들린 것이다.

우리는 오는 10월 2일 오후 3시, 서울시청광장에서 ‘제9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갖는다. 이 일에 관심이 있는 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이고 들릴 것이다. ‘목사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지 말라. 이건 누구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니 당연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왜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는가?

오는 10월 2일 오후 3시, 서울시청광장에서 진행될 ‘국가와 민족을 위한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지난 2013년 부천성회 이후 어언 9차에 이르렀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나라에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기도성회를 계속할 것이다.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는 것이 맞고,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예한 자가 되리라”(히3:14). 이번 여름 4주 동안, 수련회 및 산상집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신 말씀이다. 천국에 이르는 그

실에 우리는 5개월 넘게 부심하며 성회를 준비하였었다. 교역자 및 교회 제직들이 시청광장에 모여 함께 광장을 돌며 기도하고 매주 남산에 올라 합심으로 기도하곤 하였다. 성도들은 티셔츠를 맞춰 입고 물티슈를 들고 나가 성회 홍보에 매진하였고, 스태프들은 성회 디자인부터 현장 세팅, 촬영 등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 매달렸다. 그 결과 서울시청광장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평화통일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 후로도 우리는 대구, 올림픽공원, 전쟁기념관 등 지속적으로 8차에 걸쳐 기도성회를 계속해왔다. 이제 다시 서울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삼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중 삼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삼십 육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 같이 된지라”(수7:2~5). 교인들만 와도 충분할 거라던 아르헨티나(Argentina)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집회, 1



우리는 다시 서울시청광장에 모여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날까지 우리의 전진이 비록 더디고 늦어질 수는 있을지라도 결단코 뒤돌아설 수는 없다. 아니 뒤돌아서지 말아야 한다. 뒤돌아서는 순간, 첫 마음을 버리는 순간, 천국 길에서 이탈하는 순간, 그 누구라도 마귀 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멈춰서는 안 된다.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힘들고 지치더라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우리가 가는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

우리는 지난 2014년 9월 8일 추석명절에 서울시청광장에서 제3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가진 바 있다. 체육관 집회나 야외운동장 집회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지만, 서울의 심장부, 더구나 평소에 온갖 집회들이 열리고 뉴스의 주목을 받는 그 장소에서 기도성회를 갖는다는 사

청광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되뇌는 것은 혹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았을지 모를 타성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고, 경험도 있으니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매너리즘을 아예 처음부터 몰아내야 한다. 좌우간 악한 것들에게는 결코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는 그 틈을 악한 것들은 여지없이 밀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 쪼그마한 아이성은 누워서 떡 먹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거저먹기라고 달려든 아이성 공략에서 여호수아 군대는 참패를 면치 못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벤엘 동편 벤아엘 곁에 있는 아이로

차 집회 때처럼 차고 넘칠 거라던 파라과이(Paraguay) 엔까르나시온(Encarnacion) 야외집회에서 우리는 뼈아픈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앞잡아보다 당한 것이다. 타성에 넘어진 것이다.

“또 가라사대 이러하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요6:65).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땅에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통일의 레일을 깎는 자세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견고히 잡아 다시 한 번 하나님께 명작으로 영광을 돌리는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JC 아카데미

개강: 9월 5일(화) 저녁 8시, 엘루체 컨벤션

*금요일에서 화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수1:1~9)



무슨 일이든 두려우면 현실에 만족하고 살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와 함께 하시느니라”(민 14:6~9). 여호수아와 갈렙이 열 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을 찢으며 전한 말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수1:5~6).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19~20).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움은 인류 최대의 적이다 공포가 있는 곳에 행복은 없다

위의 말씀을 한 마디로 줄이면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다’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는 담대하다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위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냥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실 뿐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린 다윗이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 골리앗과 싸운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하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앗수르 왕과 그 좇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대하32:7)고 했음을 우리는 기

역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는 본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가도 두렵고, 높은 곳에 가도 두렵고, 좀 잘나고 좀 배우고 좀 가진 사람 앞에 가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맙시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41:10), “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여

불



총회장 이초석 목사

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사43:1~3).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위험 앞에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됩니까? 무슨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에 두렵고 떠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것은 곧 믿음이 없음을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자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마8:26) 라고 나무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아니 없는 연고이니까요. 기업이, 가정이, 교회가 좌초되기 직전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하십시오. 담대할 때 길이 보이고, 천사가 돕게 됩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와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시91:9~11).

32년 목회를 하는 동안, 저도 수많은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었고, 무수한 핍박도 받았습니다. 최루탄으로, 몽둥이로, 칼로, 권총으로 협박도 무

수히 받았 습니다. 경찰, 검찰에 조사를 받기도 했고, KGB에 끌려가기도 했고, 재판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습니

다. 담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3~24)며 담대했던 것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인들 어찌겠습니까?

여러분, 잘난 사람이 두렵습니까?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부들부들 떨립니까? 권력 있는 자 앞에 가면 주눅이 듭니까? 그러나 오늘 밤에라도 그들을 거둬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십

니까? 그들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두렵습니까? 겁납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늘 나여늘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사51:12).

저는 눈 같은 목사, 오른 팔 같은 장로가 떠난다고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간다면 레드카펫을 깔아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떠난다고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야 망하지, 돈이나 권력 있는 자가 떠난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현 상황에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김정은이 하는 망령된 것이나 트럼프가 하는 말 한마디에 웃고 울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자가 두려우면 사업하지 말고 이혼이 두려우면 결혼하지 말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이 떠나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들이, 하나님이 떠난 나라가 어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한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떠날까봐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시51:11).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마10:28).

인간은 자고로 연약합니다. 권력 앞에서 나 완력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 떨었던 베드로처럼. 그러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처럼 변화되고 담대해집니다. 믿음의 선전들이 강심장이라 담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공주나 왕자가 두려워 떨면 자격미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사에 담대할 이유입니다. 그러니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히13:6).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거자씨만한 믿음 ::

‘내로남불’이라고요?

3월에 있었던 일이다. 인터넷 검색을 하려고 Daum 메인 화면을 열었다. 그런데도 정당에서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발표하였는데 1번에 딱하니 올라가 있는 이름, 바로 필자였다! 그것도 1순위이니 까 무조건 당선 확정. 그런데 기사를 보니 더욱 가관이다. 첫 번째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기자조차도 이 사람이 누군지 파악 중’이라는 것이었다.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아는 지인들에게 화면을 캡처해서 퍼 날랐다. ‘여의도에 입성하면 필자에게 잘 보이시라. 짜잔’ 하고... 그런데 불과 두 시간도 안 돼서 정정 기사가 났다. 그럼 그렇지. 동명이인(同名異人)이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사람이 여자다! 예구머니나! 그 정당의 당원도 아니고 정치 지망생도 아닌 터에 비례대표는 웬 말이고, 국회의원은 또 무슨 소리란 말인가! 여러분도 착각하지 마시라! 이름이 같다고 진짜 국회의원 대우받는 게 아니듯, 교회 다닌다고 모두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란 말이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야 말리라!’ 작정하고 소리친다고 다 인정받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인천 영흥도에서 찜질방을 운영하시는 성도님이 있다. 그곳에 명물 하나가 있는데, 목청 좋은 수탉이 바로 그것이다. 이 녀석이 왜 유명하나면 시도 때도 없이 해를 치며 ‘꼬끼오’를 외치기 때문이란다. 밤이건 낮이건 시간에 관계없이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꼬끼오’를 외친다.

다. 목청은 또 어찌나 큰지 밤잠을 깨우는 ‘꼬끼오’ 소리에 온 동네가 골머리를 앓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수탉이 이리된 이유를 알게 되자 안쓰러움이 일었다. 해변에 인접하여 으스스한 터라 찜질방 주위로 상시 가로등이 켜져 있는데 이 때문에 시간관념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이를 먹다가도 ‘꼬끼오’, 물을 마시다가도 ‘꼬끼오’, 잠을 자다가도 ‘꼬끼오’...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근자에 곧잘 쓰인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내겐 관대한 대신 상대의 실수와 허물엔 엄격하고 집요해서 그렇다. 정작 자신의 현주소를 제대로 되돌아보지 못해서 그렇다. 시간 감각을 잃고 주인의 근심덩이가 되어버린 저 수탉처럼,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된 그런 영혼들도 많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6~27절을 통하여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 가 도리어 버림이 뭇가 두려워함이라.” 인생은 잠시 머뭇거리기에도 짧다. 곧 심판대다. 항상 스스로를 돌아볼 일이다.

신현명 목사

:: 신앙논객 ::

언행일치(言行一致)

인도의 정신적, 정치적 지도자로 추앙받는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에 대한 일화입니다. 단 것을 매우 좋아하는 자녀를 둔 한 여인이 간디에게 어린 자녀를 데리고 와서 가르침을 부탁하였습니다. “간디 선생님, 제 자식이 단것을 너무 좋아해서 이가 다 썩었습니다. 단 것을 먹지 않도록 따끔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간디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녀에게 아이를 데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오자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단 것은 몸에 해로우니까 많이 먹지 않도록 해라.” 그게 다였습니다. 여인은 의아해서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말씀이라면 지난번에 왔을 때 말씀해주셔도 되지 않았나요?” 그러자 간디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그 때는 나도 단 것을 즐기고 있었거든.” 그 사람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할 때 우리는 ‘믿을 만하다.’, ‘신뢰가 간다.’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신학교 때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자는 단에

서 하는 설교가 50%, 단에서 내려와서 삶으로 보여주는 설교가 50%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받은 감동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의 권면을 하지만 정작 내가 그 말씀대로, 권면한 대로 실천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정말 쉽지 않더군요. 총회장 목사님께서 종종 설교 시간에 “너는 그렇게 사냐고? 나는 그렇게 살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목회하면서 점점 실감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말이라면, 차라리 아예 말을 꺼내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요, 초대교회의 사도였던 베드로는 영혼들을 맡은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벧전5:3). 아이에게 던지는 충고의 말 한 마디라도 자신이 먼저 실천함으로 본이 되려 했던 간디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스스로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 서로에게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지평을 넓혀라

얼마 전, 말레이시아의 국제학교를 견학할 기회가 있었다. 나는 국제학교 학생들을 보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세계 각지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한다. 세계를 염두에 두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들 복 받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또한 나 스스로는 어쨌나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나라가 나의 세계였으며, 내가 활동하고 꿈을 펼쳐갈 공간이라고 생각했었다. 우물 밖에 바다가 있고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아마 대다수 학생들의 생각은 (우리나라의) 좋은 대학을 가야하니 (우리나라)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힘든 경쟁을 뚫고 대학에 오니 목표가 없어져버려 부표 없는 배처럼 먹고 마시고 노는 친구들이 많았다. 나도 그랬다.

이제는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다. 목표를 작게 잡아서 목표를 이루고 나니 목표 의식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살았다면 목표를 낮게 잡을 이유가 없다. 글로벌 무대에는 핸디캡이 없기 때문이다. 골프를 칠 때 아는 사람끼리 친다면 잘 치는 사람에게 핸디캡을 주지만 세계무대에서의 경쟁은 잘한다고 핸디캡을 주지 않는다. 살면서 더 큰 것을 품고 산다면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나는 스스로밖에 알지 못하는 내가 곧 세계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의 지평을 확장시키기 원하신다. 목사님은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 무한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삶의 지평을 넓히도록 노력하자.

김성일

cre8tor@naver.com



:: 귀를 기울이세요 ::

1초를 아껴라!

평생 시계 만드는 것에 헌신한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성인이 되던 어느 날, 그는 손수 만든 시계를 선물로 주었다. 그런데, 그 시계는 여느 시계와는 다른 특별한 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시계의 시침은 동(銅), 분침은 은(銀), 초침은 금(金)으로 되어 있었다. 시계를 받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시침이 가장 크니까 금으로 장식하고 가장 가는 초침은 동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는 대답했다. "아들아, 초침은 가장 중요하기에 금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초를 잃는 것은 모든 시간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란다." 그는 아들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며 말을 이어갔다.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시간과 분을 아낄 수 있겠니? 세상만사 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고 너도 이제 성인이니만큼 1초의 시간도 책임지는 어른이 되어라." SNS업체 페이스북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주커버그는 항상 회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는다. 그가 한 가지 옷차림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자신의 회사 페이스북의 기업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것 외에는 결정해야 할 사항을 줄이고 싶기 때문이란다. 그에게는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액세서리를 착용할까?’ 하는 고민의 문제들에 시간이 아까웠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의 옷장을 공개한 한 사진에는 똑같은 모양의 회색 티셔츠 몇 벌과 똑같은 모양의 후드 티셔츠 몇 벌만이 있었다. 시계장인 아버지와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의 삶처럼 1초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1분, 1시간, 하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된다. 지극히 작은 단위인 1초이지만 이 1초로 인하여 스포츠 경기에서 다량의 순위가 바뀌며, 올림픽경기에서는 신기록이 경신된다. 지금도 ‘째깍 째깍’ 하고 지나가는 1초를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제 무더위가 물러가고 2017년 후반기의 본격적인 시작인 9월이다. 인생의 승패는 순간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고 세월을 아끼는 우리 예수중심교인들이 되자!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 From Internet ::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대는 남편이 죽어서 오는 자 보았나!
그 서글픈 누가 알라
그대는 아내가 죽어서 오는 자 보았나!
그 애절함 누가 알라
그대는 자녀가 죽어서 오는 자 보았나!
그 비통함 누가 알라

그대는 아는가?
6.25의 참혹함과 그 아우성을
이 설움 저 설움 크다한들
조국 잃은 설움만 하라

압박과 설움의 36년
아~ 그 설움 누가 알라
선열들 올부짚음 통곡소리
내 귓전 울리누나
다시는 중의 땅에 메지 말라고

내 어찌 기도하지 않으랴
나의 조국 대한민국
보호하소서 주님

아~ 나의 조국 대한민국
평화의 종소리로 영원하여라
하나님 은혜 속에서

朋友



Good News

오래전 영국에서 신학자들이 모여 비교 종교학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각국에서 모인 신학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성육신이야말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신이 인간이 되었

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죽은 자가 환생한다는 비슷한 주장을 하는 종교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신학자가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고행을 통한 깨달음이 필요하고, 유대교는 율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슬람교는 코란에 명시된 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하여 자신들이 만든 방식대로 신을 찾아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쉬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내가 매일 기쁘게 ::

내가 만든 인생작

지난 8월 17일, 서울 모처에서 작은 행사가 있었다. 나는 지난 6월부터 묵묵히 이 일을 준비해왔다. 행사 전날 밤, 기도를 했다. ‘내 힘으로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했으니, 남은 시간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그 행사에는 800여 명이 약 40분간 야외에서 떡볶이를 먹는 순서가 있었다. 떡볶이 시식은 야외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가 절대로 오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행사 당일,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하나님, 비록 하나님을 위한 시작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행사가 틀어지길 바라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저에게 손가락질하며 비웃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디 저 비를 멈춰주세요.’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그 때가 떠올랐다. 메인스타디움 집회 때, 비를 멈추었던 목사님의 모습 말이다. ‘비를 멈춰달라고 기도하고 왜 우산을 들고 나가냐’는 목사

님의 말씀도 생각이 났다. 우산도 쓰지 않고 교내 캠퍼스를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비가 그칠 때까지 견겠다는 마음으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들을 손으로 닦아내며 걸었다. 긴장한 탓에 온 몸이 저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양발에 쥐가 나서 도저히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하나님, 제발, 제발, 이 비를 멈춰주세요.’ 기다시며 콘서트홀로 들어간 나는 저런 발을 주무르며 계속 기도를 했다. 그리고 떡볶이 시식 시간이 되었다. 예라, 모르겠다. 두 눈을 질끈 감고 관객 전부를 콘서트홀 밖으로 내몰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우르르 쏟아져 나갔고, 밖에는 더 이상 비가 오지 않고 있었다. 하늘의 먹구름은 태양을 가리고 있었고, 쏟아졌던 빗줄기는 공기를 서늘하게 만들어 놓았다. 사람들은 너무나 즐겁게 떡볶이를 즐기고 있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크 콘서트가 시작되었고, 나는 무대에 올랐다. 무대에서 객석을 바라보는데, 관객 800명이 골리앗처럼 느껴졌

다. 무섭고 혼란스러웠다. 그 순간, 오늘 내가 겪은 기적의 시간이 떠올랐다. 이미 나는 하나님께 맡겨진 몸이고, 이 행사는 하나님께서 마무리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 날, 영화배우 설경구는 배우 인생 30여 년 만에 난생 처음 가장 크고 가장 극적인 환호성을 들었고, 행사는 말 그대로 성황리에 끝날 수 있었다. 예산 규모 약 1,600만 원짜리 행사를 소속사도 공연기획사도 아닌 개인이 주최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안되는 게 어디 있어? 안되는 게 기적이야!’ 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예수종심의 사람이었다. ‘이것이 내 능력의 한계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였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응답을 들을 수 있었다.

2017년 뜨거웠던 여름의 어느 날, 나는 내 인생 최고의 그림을 만들었고, 그 그림이 완성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훈지

ppjee@hanmail.net

네 이웃을 돌아보라

1930년 어느 날,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철도협의로 기소된 노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판사가 물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훔쳤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예,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 자리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저도 모르게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판사는 잠시 후에 판결을 내렸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해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노인의 사정이 너무도 딱한지라 판사가 용서해줄 것으로 알았던 방청석에서는 인간적으로 너무 한다고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판사는 논고를 계속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오로지 이 노인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 노인이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 있는 여러분도 50센트의 벌금형에 동참해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어 모자에 담아 방청석 모두가 지갑을 열었다. 모두 57달러 50센트였다. 판사는 그 돈을 노인에게 주었고, 노인은 돈을 받아서 10달러를 벌금으로 내고, 남은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감격의 눈물을 글썽거리며 법정을 떠났다.

이 명판결로 유명해진 피오텔로 라파디아 판사는 그 후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뉴욕 시장을 세 번씩이나 역임할 정도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 하려니와 못본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잠28:27)는 말씀이 생각나는 이야기이다.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잠언 13장 8절)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돈은 사랑치 말되
물건의 주권자가 되어
선한 일의 도구로
돈이 좇아오게 하라

